대학생 전법 '고조'…강원대에 불교탐방동아리 창립

월정사 · 철학실천硏,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OT

철학과 교수, 월정사 의기투합
인문대학 불교동아리 첫 창립
학부·대학원생 회원 20명 참여
올해엔 월정사 중심 문화탐방
격주로 경전독해, 명상체험도

강원도 춘천=신중일 기자

대학생 전법 열기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명맥이 끊어졌던 대학 불교동아리가 재창립되거나 새롭게 창립되고 있다. 여기에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순례·탐방하는 전문 동아리가 새롭게 창립돼 눈길을 끈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소장 유성선)는 2월 28일 강원대 인문대학 3호관 104호에서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사)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지도법사 지우 스님(춘천 월천사 주지)을 비롯해 김희 동아리 지도교수,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과 동아리 학생회원 20명이 참석했다.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은 강원도 인재 양성에 의견을 함께 한 오대산 월정사와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월정사와 철학실천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매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포함,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한 자원봉사와 명상, 템플스테이 등 체험활동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창립한 강원대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불교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탐방하는 첫 동아리이자 첫 인문대학 불교동아리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 회원도 학부생 13명, 대학원생 7명 총 20명으로 단과대학 동아리로는 꽤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강원대에는 중앙동아리인 불교학생회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 두 곳이 불교동아리로 활동하게 됐다.



2월 28일 창립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강원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 회원과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동아리 지도법사 지우 스님, 김희 지도교수,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비유를 들며 불법(佛法)을 만나는 희유한 인연을 맺은 것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스님은 동아리에 창립축하격려금을 전하기도 했으며, 매달 30만원의 활동비 지원도 약속했다.

일감 스님은 "바닷속 눈먼 거북이가 백 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바다 위를 떠다니는 널빤지에 뚫린 작은 구멍에 거북이 머리가 들어가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그만큼 어려운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오늘 모인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귀중한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러분은 불교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명상도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반"이라면서 "부처님은 도(道)를 이루는데 도반이 전부라고 강조하셨다. 함께 탁마하며 동아리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3월 신학기부터 명상 수행과 경전 연구를 주제로 각각 격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경전 연구는 김희 지도교수가, 명상 수행은 지도법사 지우 스님이 담당한다. 또한 연1회 템플스테이, 월정사 탑돌이를 진행하며 연4회 불교문화탐방이 이뤄진다. 올해에는 월정사와 상원사, 청평사 등 강원권 사찰을 탐방하며, 향후 전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도법사 지우 스님은 "올 한 해 동안 호흡명상을 가르쳐 드리고, 사찰탐방도 진행하려 한다"면서 "잘 준비해서 알찬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이끌 회장단도 구성됐다. 회장에는 조우연(철학전공 21학번) 씨가 부회장에는 허보윤(철학전공 21학번) 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우연 회장은 "전국 대학에서 불교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단과대학 동아리는 강원대가 유일할 것이다. 이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서 "20명의 회원들이 탐방을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사고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보윤 부회장은 "도반들이 어려움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 철학실천연구소에서 첫 번째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젊은 불교 함께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임원들의 예방을 받고 "불교도 이젠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불련도 함께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국제선명상대회와 불교도대법회의 의미와 배경을 소개하며 "'젊은 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불련도 포교원과 잘 협의해(불교도대법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봉은사 '천년을 세우다'에 1억씩





서울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사진 오른쪽〉가 조계종단 주요 종책 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각각 1억원을 쾌척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세워 모시는 일이다. 천 년 동안 누워계신 부처님을 세워 미래 천 년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종단 직영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가 중심이 돼 기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덕분에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액운은 '활활'…"올해엔 좋은 일만"

봉선사, 정월대보 달집태우기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여 성황
호산 스님, 광동고 장학금 전달



남양주 봉선사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모든 액운을 태우고, 한 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24일 일주문 앞에서 '2024년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를 진행했다.〈사진〉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 달이 떠오를 때 짚으로 만든 '달집'에 불을 질러 주위를 밝히는 놀이다.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는 경내 범종루 마당에서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달집 이운, 불교 의례,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길놀이패, 사중스님, 달집, 불자 순으로 줄을 지어 조심스레 옮겨진 거대한 달집이 일주문에 다다르자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작법 의식이 거행됐다. 이어 광개토예술사물단의 길놀이 공연과 상월청년합창단의 음성공양, 박정민 포교사의 붓글씨 퍼포먼스, 어연경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흥부가 창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중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도 동참대중들은 마지막까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본격적인 달집태우기에 앞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비가 오는 날이지만, 동참자들의 마음에는 보름달이 떴으리라 믿는다"며 "오늘 달집태우기에 함께한 인연으로 마음속 모든 소원이 이뤄지고, 청룡의 해 여의주를 따라 하늘로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호산 스님은 광동고 박기태, 박수빈, 이태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도 했다.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티 없이 둥글고 맑은 대보름달처럼 새해 소망은 불처럼 활활 이뤄지고 묵은 근심과 미움, 원망, 아집, 편견은 불길 속에서 재가 돼 사라지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나니 바르고 지혜롭게 살기를 발원하옵니다."

끝으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참석내빈들이 달집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시민들이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소원지가 훨훨 타올랐고, 시민들은 연신 승천하는 불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저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행사는 1시간여 만에 달집을 다 태우고서야 마무리됐다. 남양주 봉선사=김내영 기자

수미산원정대 7기 148명 입학

2월 24일, 봉은사서 입학식
6월까지 매주 수요일 12강좌

수행과 신행의 원력 실천으로 불교중흥과 대한민국 화합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수미산원정대가 7기 입학생을 받고 4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7기에는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인 148명이 입학, 시간이 더할수록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2월 24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7기 입학식이 봉행됐다. 기업 대표를 비롯해 교수, 약사, 법조인, 회계 금융인, 정치인,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영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법을 올곧이 배우고 전해 불교중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상월결사 정신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도보순례, 그리고 수미산원정대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수미산원정대 6기의 활동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학사일정과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사일정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77명의 입학생의 이름과 직업을 일일이 소개하며 동기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혼자가 아닌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미산원정대의 근본 취지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산원정대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잘 터득해 바른 길, 행복의 길로 가길 바란다"면서 "불교를 잘 배워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인연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기 수미산원정대는 2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는 강의는 모두 12강으로 구성됐다. 1박 2일 성지순례(4월 13~14일)와 두 차례에 걸친 상월선원 템플스테이(5월 25~26일, 6월 8~9일)도 준비돼 있다. 6월 19일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8월 31일 수계 및 졸업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수미산원정대 7기 입학생들이 2월 24일 열린 입학식에서 부처님 법을 올곧이 배우고 전할 것을 다짐했다.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첫 삽

지하 1층 · 지상 1층 규모
호국역사교육실 등 운영



전등사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대표 전법·포교 공간이 될 '역사문화교육관'이 첫 삽을 떴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2월 29일 경내에서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역사문화교육관은 선불장 옆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69.95㎡ 규모로 조성된다. 호국역사교육실과 명상실, 어린이 법당, 신행단체실 등이 들어설 역사문화교육관은 △명상지도자와 수행자들을 위한 복합수행공간 △불교대학 등 교육수강생들을 위한 강의 공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법당 △신도들을 위한 신행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은 교육관 건립부지에서 시삽을 하며 원만한 불사를 기원했다.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제17대 군불총회장 고현석 장군 취임

2월 25일 국방부 원광사서…창립 24주년 법회 겸해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의 17대 회장으로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중장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스님)은 2월 25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17대 군불총 회장 취임식과 군불총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고현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17대 군불총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군종교구와 협력하여 신도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불자간 유대를 강화하겠다. 또한 신행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병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수습기자